

나주시-신안군, '흥어 세계화' 유네스코 등재 출사표

'생산지-발효지 만남' 지정문화재 추진 업무협약 체결 독창적 식문화 계승...흥어 음식 전국화·대중화 기여

삭힌 흥어로 대표되는 발효 식문화의 메카 나주시와 흥어 생산지 신안군이 '흥어 세계화'에 출사표를 던졌다.

나주시는 13일 "전날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신안군과 흥어 식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시군은 협약을 통해 흥어 식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 공유, 지정문화재 추진 등 상호 협력을 본격 착수한다.

흥어를 매개로 두 지자체는 역사적 측면에서 남다른 인연이 있다. 신안 흑산도는 흥어 집산지, 나주 영산포는 삭힌(숙성) 흥어의 본고장으로 유명하다. 조선 중종 25년 관찬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고려말 남해안

지역 왜구의 노략질로 신안 흑산도 인근 영산도 어민들이 나주 영산포로 피난을 오게 됐고 그때부터 이 지역에서 삭힌 흥어를 먹게 됐다.

당시 영산도에서 영산포까지 오는 데는 뱃길로 보름 정도 걸렸다. 이때 배에 싣고 온 생선들이 부패가 심해 버렸는데 향아리 속에서 꼭 삭은 흥어만큼은 먹어도 뒤탈이 없는 데다 먹을수록 알싸한 풍미가 있어 숙성 흥어가 영산포에 정착했다는 유래다.

양 시·군은 흥어가 가진 역사적 전통성과 독창적인 식문화 계승에도 앞장서고 있다. 나주는 19회째, 신안은 9회째 각각 흥어 축제를 개최해오며 남도를 넘어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흥어 음식 대중화에 이바지해왔다.



나주시와 신안군은 지난 12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윤병태 나주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 흥어 관련 명인·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어식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 제공)

나아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흥어 식문화의 역사적·학술적 가치 조사 및 자료 공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등에 협력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포부다.

협약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박우

량 신안군수,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 시·군의원, 흥어 관련 명인·단체 주민 40여명이 참석했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협약은 나주와 신안이 손을 잡고 계승해온 흥어 식문

화를 확산하고 세계 인류와 함께 나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양 시·군과 의회, 생산과 발효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온 명인, 주민들 모두가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한 마음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우량 군수는 "영산도와 영산포는 명칭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한 뿌리를 갖고 있다"며 "전라도 식문화의 분류를 세계에 알리고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해남군, 슈퍼푸드 '또아리 블루베리' 수확

일조량 풍부·해풍 영향 크고 단단...당도도 높아 인기

해남에서 맛도 크기도 슈퍼푸드인 '또아리 블루베리'의 수확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 또아리 블루베리는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고 자라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소



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 과실이 크고 영양 성분이 풍부한 고품질 블루베리로 수입산과의 차별화에도 성공했다.

요즘 수확되고 있는 중생종 블루베리는 소비자들이 '또아리' 블루베리, '향아리' 블루베리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과육이 두껍고, 크기가 남다른 것이 특징이다.

또아리(파리)는 예전 물동이를 머리에 이기 위해 엮은 동글게 만든 고리로 블루베리 두께가 또아리 못지 않게 도톰하다고 해 단골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최상급 과실만을 수확하기 위해 과실의 수를 조절하고 유기농 초생재배를 통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작물을 관리해온 점이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의 비결이다.

해남 블루베리는 농가 직거래나 로컬푸드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확 체험도 실시해 전국에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과 식이섬유, 칼슘 등이 다량 함유돼 항산화와 면역력 강화, 시력 개선 등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대표적인 슈퍼푸드로 꼽히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관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블루베리 연구회를 조직하고 친환경 재배를 통한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을 조성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우량품종을 개발·보급하는 등 블루베리 시장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강진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보은산 산책로 멧돼지 퇴치

16일 오후 8시-17일 오전 2시 통제

강진군이 고성사 가는 길 등 대표적 군민 휴식공간인 보은산 일대에서 멧돼지 퇴치 활동을 펼친다.

강진군은 13일 "16일 실시하는 멧돼지 퇴치 활동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 들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강진군 야생동물관리연합회 주관으로 진행 된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저녁 시간대 보은산 산책로를 찾는 군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멧돼지 등 야생 동물 목격 신고가 늘어나고 지난해 9월에 실시한 포획 활동에 대한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가을철 포획 활동 전에 사냥개를 이용한 자발적인 퇴치 활동을 갖기로 했다.

퇴치 활동은 16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사냥개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은산 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주민의 보은산 출입을 통제하는 등 민일의 사태도 대비할 계획이다.

전재영 환경축산과장은 "멧돼지 포획 시간대에 보은산을 산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과 야생동물 퇴치 등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영광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운영

내달 28-30일 국립나주숲체원...16일까지 모집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3일 "초등학생 4-5학년 자녀와 부모 13가족(26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28-30일 3일 일정으로 국립나주숲체원에서 건강강한 미디어 사용을 위한 인터넷·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SELF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SELF 캠프는 'Smart phone End Let's go Family'의 약어로 스마트폰은 잠

시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

SELF 캠프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조절 능력 향상과 부모·자녀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부모는 기능적 의사소통을 이용해 자녀의 인터넷 사용 조절을 돕고, 자녀는 스스로 인터넷 사용 조절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SELF 캠프 프로그램은 ▲마음을 함께 나누자! 부모, 청소년, 가족상담 ▲우리가족 다정하게 대화하자! 의사소통 연습 ▲함께 재밌게 놀자! 놀이 및 체험활동 등이 있다.

모집기간은 16일까지이며 SELF 캠프 포스터 큐알코드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치유캠프(061-353-9188)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영광=김동규 기자

신안군, 임자태양광발전소 준공식

99MW...주민 1인당 분기별 10-40만원 햇빛연금

신안군은 13일 "지역 내 다섯 번째로 햇빛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임자면에서 최근 99MW 규모의 임자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은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의장, 전남도의회 의원, 신안군의

회 의원, 임자사회단체장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광해수욕장 행사장에서 개최됐다. (사진)

발전소로는 박재택 해솔라에너지주 대표이사, 서건기 SK E&S 부사장, 이 용걸 SMRE 대표이사, 유승호 PEAK

ENERGY 대표이사 및 사업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함께했다.

임자태양광발전소는 99MW 규모로 총 사업비 1천850억원 중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이 총 사업비의 4%인 74억원을 출자했다.

지난해 10월 상업 운전을 개시, 올해 4월26일 임자도 주민 3천131명에 분기별 1인 당 10-40만원씩 첫 햇빛연금이 지급됐다.

/신안=양훈 기자



"도, 동부권 확대 조직개편 전면 재고해야"

무안군의회, 지역 쏠림·급조된 '외형 불리기' 등 지적

무안군의회는 13일 "전남도가 추진 중인 '동부지역본부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안 전면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성명은 전남도가 오는 7월 동부 통합청사 개청을 앞두고 동부지역본부를 4개 시·군, 300명 규모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직개편안은 부서 고유의 역할과 지향점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급조된 기계적인 부서 분리·통합의 결과물로 동부지역본부의 '외형 불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운을 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 본청의 전략적 기능과 통합 행정이 절실히 요

구되는 상황인데도 지시는 오로지 '정치 계산'을 두드리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동서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전남도청의 이전 취지는 크게 퇴색될 것이며, 나아가 '동부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남약신도시가 계획인구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서남권 중심도시로서의 자생력을 충분히 갖춘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조례는 오는 15일 전남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6월 중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무안=김삼호 기자

완도군, 고금면에 생활체육공원 준공

2만52㎡ 면적에 축구장·농구장·놀이시설·산책로 등 갖춰

완도군은 "최근 고금면 생활체육공원(덕암리 619번지·사진) 준공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허공희 완도군의회 의장, 신의준 전남도의회 의원, 최경철 완도군체육회장, 고금면 기관·사회단체장, 면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금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는 총 40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해 5월 공사를 시작해 2만52㎡ 면적에 친환경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어린이 놀이시설, 산책로 등이 마련됐다.

또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Safety), 환경성(Environment), 쾌적성(Amenity) 등 'S·E·A'를 갖춘 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고금면에는 지난해 3월 파크골프장에 이어 생활체육공원까지 조성돼 면민들이 실내외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신우철 군수는 "고금면은 지리적 장점과 인근에 해양체육센터 등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시설들이 건립되면 전지훈련·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건강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스포츠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